

“연승 얼마만이야” 광주FC, 대전 잡고 8위 점프

K리그1 11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에 2-1로 역전승
교체 투입 허울 결승골...4천여명 관중에 ‘승리 선사’

이정호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하면서 광주가 안방에서 연승에 성공했다.

광주FC가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하나은행 K리그1 11라운드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대전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이희균과 허울이 연달아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1일 제주원정에서 3-1 승리를 거두고 6연패에서 탈출했던 광주는 연승을 위해 초반부터 부지런히 공세를 펼쳤다.

전반 4분 이근희가 오른쪽에서 김한길에 올려준 공을 헤더로 연결했지만 상대 골키퍼 이창근에게 막혔다.

1분 뒤에는 이희균이 오른쪽 슈팅을 시도했고,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광주의 두 번째 유효슈팅이 기록됐다.

전반 10분에는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문민서가 슈팅 행렬에 가세하면서 대전을 압박했다. 하지만 선취골은 대전의 차지가 됐다.

프리킥 상황에서 대전 김현우의 머리 맞고 넘어온 공이 안톤의 오른쪽으로 향했다. 안톤은 발을 뻗어 광주 골대 안으로 공을 밀어 넣었다.

광주가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공세를 이어갔다. 전반 23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 있던 ‘루키’ 문민서가 중원에서 올라온 공을 잡은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오른쪽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골키퍼 품에 안겼다.

39분에도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상대 수비 맞고 흐른 공을 문전에 있던 박태준이 잡아 오른쪽으로 슛을 날렸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0-1로 뒤진 채 시작된 후반전, 이정호 감독이 문민서와 김한길을 대신해 엄지성과 가브리엘을 투입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광주가 후반 3분 연달아 태클로 공을 뉘아줬고, 가브리엘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광주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후반 6분 가브리엘이 왼쪽에서 넘겨준 공을 엄지성이 헤더로 연결했다. 골키퍼 이창근의 편지에 막혀 공이 뒤로 흘렀고, 이희균이 문전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공을 터쳤다.

이내 골망이 흔들리면서 경기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는 무승부가 아닌 ‘승점 3’을 위해 공격을 이어갔다.

후반 24분 엄지성이 정지용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 슈팅을 날렸다. 매섭게 날아간 공은 골키퍼 이창근의 좋은 수비에 막혔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두현석이 몸을 날려 선보인 헤더가 골대를 맞으면서 광주가 땅을 쳤다.

후반 36분 이정호 감독이 이근희를 불러들이고 허울을 투입하면서 제공권을 강화했다. 교체카드는 이번에도 적중했다.

그라운드에서 투입된 지 5분 만에 허울이 시즌 마수걸이 골을 장식하면서 역전극을 연출했다.

가브리엘이 오른쪽에서 문전에 있던 허울을 향해 공을 띄웠다. 허울이 큰 키로 상대를 견제를 뚫고 헤더로 골망을 흔들면서 2-1을 만들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이후 9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광주는 침착하게 대전의 공세를 막으면서 역전승과 함께 연승을 기록했다.

승점 3을 더한 광주는 11위에서 8위까지 올라섰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계속된 비에도 4221명이 입장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광주FC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광주 허울(가운데)이 득점한 뒤 가브리엘, 엄지성과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다이너마이트 타선’ 1위 수성 나선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다이너마이트 타선’으로 1위 수성에 나선다.

KIA는 KT 위즈와 한화 이글스를 상대한 지난주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KT와의 경기에서는 실수 연발로 승리를 내주면서 루징 시리즈,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1승씩 주고받은 뒤 어린이날 경기를 비로 치르지 못했다. KIA가 뒷걸음치는 사이 2위 NC가 3승 2패, +1을 기록하면서 두 팀의 간격은 1경기 차로 줄었다.

1위 수성이 목표가 된 한 주 KIA는 7일 대구로 가 초반 부진을 털어낸 삼성 라이온즈와 주중 원정 경기를 갖는다. 이어 홈으로 돌아와 SSG 랜더스를 상대로 챔피언스필드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1위 KIA에 ‘루징 시리즈’를 안겨 준 상대와의 설욕전이다.

마운드 전면에 서는 양현종의 어깨가 무겁다. 양현종은 지난 1일 KT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시즌 첫 루징 시리즈 삼성과 원정...주말 홈서 SSG전
나성범 복귀...박찬호부터 한준수까지 ‘실 곳 없는 타선’

‘완투승’ 양현종 두 차례 등판...‘부진 기억’ 탈출 나서

완투승의 주인공이 됐다. 단 1실점으로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양현종은 시즌 3승이자 통산 171승을 완투승으로 장식했다.

KBO리그 통산 다승 2위의 면모를 보여준 양현종은 7일 선발로 출격해 삼성 이승현과 맞대결을 갖는다.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양현종에게 시선이 쏠린다.

양현종은 대구에서 유독 좋지 않은 기억이 많다. 지난 시즌에는 대구에서의 등판이 없었지만 2022시즌에는 두 경기에서 4.21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2개의 피홈런도 남겼다.

2020시즌에도 두 경기에 나와 1승은 기록했지만 대구전 평균자책점이 8.68로 가장 높았다. 4개의 홈런도 맞았다.

2019시즌에도 삼성 원정 두 경기를 소화하면서 2개의 홈런을 내주는 등 1승 1패, 평균자책점 9.00을 기록했다.

앞선 경기에서 한 경기를 모두 책임진 만큼 체력적인 부담도 덜어내야 한다.

‘공격’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양현종은 1일 KT전에서 1회 시작과 함께 선취점은 내줬지만 공격적인 피칭으로 판을 뒤집었다. 타자들의 힘을 믿은 양현종은 수비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타선 집중력을 극대화했다. 결과는 9-1 완투승이었다.

KIA는 삼성과의 시즌 첫 대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김현근의 활약에 맞춰 시즌 첫 루징 시리즈를 남겼던 KIA는 화력을 강화해 대구로 간다.

헛스윙 부상에서 회복한 나성범이 타선에 새로

자리했고, 앞선 대결에서 부진했던 김도영과 소크라테스도 다른 모습으로 대구를 찾는다.

김도영은 앞선 삼성과의 3연전에서는 1안타 2볼넷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힘과 파워를 동시에 보여 주면서 뜨거운 4월을 보냈다.

최근 홈런을 쏟아내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4월 4~6일 전개된 삼성과의 홈경기에서는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3경기에서 단 하나의 안타도 기록하지 못했고, 볼넷 1개만 남겼다.

좋은 타격감에도 결과가 좋지 못했던 박찬호도 5월 4경기에서 7개의 안타를 생산하며 반동에 성공했다. 포수 한준수는 지난 4일 한화전에서 시즌 세 번째 3안타 경기를 장식하는 등 실 팀 없는 타선이 구축됐다.

주말 ‘홈런 대결’도 흥미롭다.

4월 16-18일 문학에서 전개된 KIA와 SSG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는 12개의 홈런이 쏟아졌다.

김선빈이 연속 경기 홈런을 장식했고, 김도영은 문학에서 3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겼다.

반대로 쓴 홈런의 기억도 남았다. 정해영은 4월 16일 9회말 2사에서 SSG 최정에게 동점홈런, 한유섬에게 끝내기 투런포를 맞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KIA는 이 시리즈에서 뜨거운 홈런 공세를 펼치고도 1승 2패의 전적을 남겼다.

뜨거운 화력을 앞세운 KIA가 설욕전에 성공하고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00·120 < 4

손흥민, EPL 300경기 120골
팀 4연패에 ‘대기록’ 빛 바래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통산 300번째 경기에서 120호 골을 신고했으나 소속팀 토트넘의 4연패를 막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5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3-2024 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골을 먼저 실점하는 등 고전한 끝에 리버풀에 2-4로 졌다.

스트라이커 히샤르리송이 후반 27분, 주장 손흥민이 후반 32분 차례로 득점포를 가동해 추격을 시작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자가 너무 컸다.

이번 골은 이날 경기를 통해 EPL 통산 300경기 출전을 달성한 손흥민의 120번째 득점이었다. 이전까지 토트넘 구단에서 ‘EPL 300경기’를 이룬 선수는 위고 요리스(LA FC)와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뿐이었다.

120호 골을 넣은 손흥민은 EPL 역대 득점 순위에서 공동 2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리버풀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 골을 더 추가하면 라힘 스털링(첼시), 로멜루 루카쿠(AS 로마)와 함께 공동 20위가 된다.

올 시즌으로만 보면 시즌 17호 골(9어시스트)이다.

손흥민이 뜻깊은 득점을 신고했지만 토트넘은 시즌 막판 4연패 수렁에 빠져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뉴캐슬(0-4), 아스널(2-3), 첼시전(0-2)에 이어 이날도 패한 5위 토트넘(18승 6무 11패·승점 60)은 4위 애스턴 빌라(20승 7무 9패·승점 67)와 격차를 이번 라운드에서도 좁히지 못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토트넘이 잔여 3경기를 모두 이기고 애스턴 빌라는 2경기를 모두 져야 역전할 수 있다.

골 득실도 애스턴 빌라(+20)가 토트넘(+11)에 앞선 터라 맨체스터 시티와 비기고 2경기는 이겨서 승점 7을 챙긴다 해도 전패한 애스턴 빌라가 앞선다.

올 시즌 EPL에서는 4위까지만 다음 시즌 UCL 출전권을 받는다. /연합뉴스

한국남 400m 계주 ‘파리 좌절’

한국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다.

김국영(33), 김태호(31), 고승환(26), 이재성(22·이상 광주시청)과 이시몬(23·안양시청)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24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 출전해 36년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렸지만 예선 1조 5위, 패자부활전 2조 4위를 기록하며 대회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총 32개국이 도전장을 내민 이번 대회 남자 400m 계주 예선전에서 한국은 1조에 편성돼 39초25로 8개 팀 중 5위를 기록했다. 예선 1-4조에서 각 조 1-2위에 오른 8개 팀(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영국, 자메이카)은 결선 진출과 동시에 파리 올림픽행을 확정했다.

한국은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한번 파리행 티켓 재도전에 나섰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체고 조정부, 전국대회 ‘금빛 물살’

‘화천평화배 전국조정’ 금3 등 6개

광주체고 조 정부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총 6개의 메달(금3, 은2, 동1)을 획득하며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사진>

광주체고 여자 조 정부는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여고부 종합 우승도 차지했다.

여자 조 정부는 쿼드러플스컬(4X) 1위, 싱글스컬(1X) 1위, 경량급더블스컬(L2X) 1위, 더블스컬(2X) 2위에 올랐다.

4인조 경기인 쿼드러플스컬에서 서에서-김정민-김승현(이상 3년), 김지선(2년)은 7분13초49를 기록하며 2위 추주여고(7분48초09), 3위 영북여고(8분52초02)를 밀어내고 여유롭게 1위에 자리에 올랐다. 김승현은 싱글스컬에서도 결승선을 8분15초39의 기록으로 통과하며 2위 호산고 김가는



(8분31초03), 3위 추주여고 지예진(8분41초72)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량급더블스컬에서는 서에서, 김지선이 7분37초66로 2위 예산여고(7분50초24), 3위 추주여고(8분06초11)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김정민, 김별(1년)은 더블스컬에서 7분58초15의 기록으로 1위 서울체고(7분46초50)에 이어 2

위에 올랐다.

광주체고 남고부는 경량급더블스컬 2위, 경량급 싱글스컬 3위를 기록했다.

경량급더블스컬에서 박준호-강한경(이상 1년·7분29초19)이 부산체고(7분15초07)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준호는 경량급싱글스컬에서 동메달을 더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